The 8th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15

International Competition

GICB 2015

안누시카 브로쉐 Annouchka Brochet Аннушка Броше

러시아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 거주 및 활동 Lives and works in Moscow, Russia

특별상 »

Special Prize

마지막 꿈, 2013
도자, 영상(4분 42초), 음향
The Last Dream, 2013
Ceramic, vedio(4min 42sec), sound
100 × 100 × 80

작품평

타테하타 아키라 "테이블에 겹겹이 쌓인 컵과 쟁반, 포트 등 식기 위에서 젊은 여성이 잠들어 있는 모습의 영상을 투영한 작품으로 세라믹이 부딪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 여성을 구속해 온 가정의 상징인 식기의 잔해와 오버랩되어 은은히 비쳐지는 잠든 모습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감촉을 동반한 페미니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프레데릭 보데 "도자기의 소리에 관한 탐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작품에 사용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국제공모전의 수상작에도 소리를 다루는 다양한 작품이 선정되었다. 세라믹의 생생한 소리를 음악적, 극적, 감성적으로 활용하고, 편곡된 소리와 퍼포먼스를 조합하여 사물과 신체의 관계, 사물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습과 규범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예술 학교에서 수없이 다루어져 이제는 다소 설득력을 잃고 진부해지기까지 했다. 한 세계의 끝, 즉, 부르주아적 관습의 실종과 그 잔해를 단순히 나열하는 작품들이 유행처럼 등장한 것이다. 네덜란드 작가 비카 미트리첸코Vika Mitrichenko의 〈할머니의 보물Grandmother's Treasures〉을 비롯한 최근의 수 많은 작품들이 도자기가 불러 일으키는 '올드 패션'에 대한 향수와 이제는 통용되지 않은 부르주아 삶의 방식을 오래된 도자기 장식물을 숙련된 솜씨로 개조하고 혼합시켜 시각적으로 효과적이면서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안누쉬까 브로쉐Annoushka Brochet의 설치작품은 지나치게 가변적이고 애매하며 창조성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도자 전문가보다는 화가이자 조형예술가에 더 가까운 그녀는 약간은 진부한 연극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깨진 접시 위로 잠든 젊은 여성의 영상이 투사된다. 그녀들은 꿈속에서 허례허식에 따라 정해

Q&A

Q. 박경순: 도자, 그리고 영상과 소리를 이용하여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 작품은 개념적 성격이 강한데요. 실제로 만들어진 도자작품 이외에 영상과 소리를 접목하는 이유와 작업의 주된 주제를 여성으로 설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안누시카 브로쉐 프로이트의 은폐 기억Screen Memory: 중요한 기억을 덮는 사소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작품은 컵, 접시, 찻주전자 등 전통 여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위에 비디오 화면을 투사하여 은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화면, 그러니까 은폐된 기억 뒤에는 파괴된 '소시민Petit-bourgeois 사회가 놓여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에요. '미래파Futurist' 세계로 조립되어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제 도자기는 날마다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이미지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티스푼으로 컵을 두드려 나오는 소리를 통해 새로운 페미니스트 시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Commentary

Tatehata Akira "It is an artwork that uses a video to present a young woman sleeping on a table that is stacked high with piles of cups, plates, and pots, while the sound of ceramics bumping into each other is played repeatedly. The sleeping woman, the image of whom is slightly reflected, overlaps with the remnants of dishes—symbolizing how women have been confined to the home—and seems to deliver a feminist message accompanied by an ominous tone."

Frédéric Bodet "More and more young artists are becoming interested in the sounds of ceramics and actively use them in their art, often achieving great results, as shown by some of the works on the list of this year's biennale winners. Today, the sounds of ceramics are studied in many art schools around the world, with a focus on using them productively to create various musical and theatrical effects and gain knowledg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and the human body and the social conventions and norms that influence our way of dealing with the objects around us. We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to a wealth of ceramic works, including *Grandmother's Treasures* by the Dutch artist Vika Mitrichenko, that capture a bitter sweet longing for the "old fashion" of days gone by and a bourgeois lifestyle that is no longer coveted by integrating and reorganizing old ceramic items in creative and symbolic ways. For some experienced connoisseurs, *The Last Dream*, a work of installation art by Annoushka Brochet, may appear somewhat whimsical, vague, or even dull, largely due to the theatrical approach she has chosen. Better known by her paintings and sculpture rather than her ceramic works, she projects the image of a young woman sleeping upon shards of pottery, suggesting that, in her dream, she experiences the life of women in the past, for whom serving and drinking tea formed an important part

진 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차를 대접했던 과거 여성의 사회적 위치 생활 방식을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안타깝게도, 깨진 접시 위에 투사된 영상이 낮은 조도와 빛의 회절로 인해 잘 보이지 않음으로써 작품에 내재된 환상의 메시지와 관능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박경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식기의 형상들에 그와 어울리는 영상을 투영함으로써 여성들의 다도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상에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의 우아한 모습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진, 그리고 깨진 도자기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어질러진 식탁 위의 구성이 과거 화려했던 문화의 이면을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앤더스 루발트 "잘못된 티파티를 대변하고 있다. 찻주전자에는 손잡이가 여러 개 달려있고 주전자 몸통에 컵들이 붙어있지만 정작 차를 따를 수 있는 주둥이는 없다. 깨진 접시들 중 어떤 것들은 다시 붙여 놓았지만 원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차림 위로 잠든 여성들의 모습이 투영되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도 간혹 들린다. 그러나 이들은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다. 이 포슬린 다기세트 위에 러시아어, 불어, 영어 등 여러 언어로 된 깨진 문장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꿈꾸고 있는 이 여성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티파티인가?"

나미타 위걸스 "이 작품은 1950년과 60년대 미국의 행주에 묘사된 억압된 가사노동을 연상시킨다. 그 당시 여성들은 흰색 다과

of their daily schedule. Unfortunately, the weak illumination of the image and diffraction of light make the expression of the theme of illusory life and eroticism ineffective."

Q&A

Q. Kyoungsoon Park This piece expresses the idea of the artist using ceramics, video, and sound. It addresses the very nature of conceptual art. Could you tell me why you added video and sound to a ceramic piece you had already created? And why did you use women as the primary subject of your work?

A. Annouchka Brochet My artwork *The Last Dream* is a "Screen Memory"(Freud). The screen is a ceramic layer of elements related to the woman traditional daily life(cups, plates, and teapots) specially arranged for the video projection. Behind the screen appears the ruined "Petit-bourgeois" world that gives hope to a new utopian society. The pieces are not simply broken; they are cut in a leather hard quality and assembled in a new "Futurist" order. No more chitchats from the daily tea-drinking parties but the sound of teaspoons knocking the cups as bells announcing the arrival of a new feminist era.

Kyoungsoon Park "The combination of vessel forms and video images is outstanding. By projecting images that match the shapes of common vessels on the surface of vessels, *The Last Dream* approaches female tea culture from a new perspective. The images of elegant young women projected are in striking contrast with heaped objects and broken ceramics in chaos, imparting a unique feeling. The composition of objects on the table in chaos projects the other side of a once rich culture."

Anders Ruwalds "*The Last Dream* presents itself as a tea-party gone wrong. The tea-set is oddly fused: one teapot has too many handles and cups sticking out to the siLe, but no spout to pour from. Some of the broken pieces seem to been stuck back together, but not in the way they came apart. On top of this chaos we see several projected images of women sleeping. Once in a while we hear a woman chuckling. But nobody says a word. The tea set speaks though. But in many languages and broken sentences written on top of the porcelain. Odd bits of text in Russian, French and English. Who are these dreaming women? Is the tea party what they were dreaming of?"

Namita Wiggers "This artwork reminds me of the confines of domesticity expressed upon dishtowel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and 1960s. Women could

용 행주장식을 위한 다양한 문양의 자수세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가끔 골동품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건들 위에는 성난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는 찻주전자가 수 놓여 있다. 이 행주가 여성들의 피난처로 안식을 주었던 것이다. 화난 것 같은 찻주전자는 식구들이 자신이 준비한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까지도 자신이 하고 있는 여성의 감정을 대변한다. 이 작품 안의 공백은 사회문화적 억압의 구체화를 위한 공간으로 잠들어 있는 여성의 잠재의식 안에서 표현되는 내적 성찰과 가능성의 상실을 표출하기 위한 무대를 제공한다."

purchase embroidery kits with various designs to be used on white tea towel blanks. The most fascinating towels, available on occasion in antique stores, are the carefully stitched angrily whistling teapots. The towel operates as a space of refuge and release in these instances; the angry teapot as a representation of the emotions of a woman drying dishes after a meal she's prepared, with a towel she may also have embroidered. In much the same way, the blankness of the tableware in *The Last Dream* provides a platform for internal thoughts and loss of possibilities expressed in the subconscious of the sleeping woman, a reification of socio-cultural constraints."

작가노트 나의 작품은 페미니즘에 관한 것이다. 주로 전통적으로 여성들과 관련된 주제인 클래식한 그릇들과 도자기를 매체로 작업한다. 나는 러시아 최초의 페미니즘에 관한 소설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다루고 있다.
〈마지막 꿈The Last Dream〉은 소위 '광적인' 다도에 관한 설치작품이다. 괴기한 형태의 일상용품, 컵, 접시, 찻주전자 등이 모두 테이블 위에 도자기로 만든 특별한 '레이스'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다. 이런 물건들 표면에는 꿈꾸는 여성들 그리고 그 소설에서 인용한 문구들이 그려져 있다. 그릇 표면 위로 실제로 꿈을 꾸고 있는 젊은 여성의 영상물이 투영된다. 차를 따르고 숟가락들이 컵에 부딪쳐서 나는 소리가 새로운 차원의 도자예술을 보여준다.
여성의 해방과 함께 '브루주아적인' 차 마시는 관습은 없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산산 조각난 그릇들을 보면서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사상'을 본다.

Artist Statement My work is related to feminism. I re-visit the questions asked in the first Russian feminist novel "What is to be done?"
The artwork *The Last Dream* is an installation of the so-called "mad" tea ceremony. A heap of strange daily objects, cups, plates, teapots etc. are placed chaotically all over the table, on a special "lace" of ceramics. Those objects are painted with dreaming women and phrases from the novel. On top of the crockery a projected video shows a real dreaming young woman. Sound of tea poured and of spoons knocking the cups gives a new dimension to the world of ceramic.
With emancipation, the "bourgeois" tea drinking is ruined. We foresee the idea of "Utopian Communism", today left in pieces.

예술가
학력 1995 더북디자인 졸업, 러시아 I 1988 칼리닌예술아카데미 졸업, 러시아
전시 2014 연약한 여성, 에라트라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I 2014 '러시아', 발로리스국제비엔날레 ; 창조와 도자, 프랑스
소장 모스크바모던아트미술관, 러시아 I 마넬리미술관, 발로리스, 프랑스

Artist
Education 1995 Graduated The State Book Design Institute as a graphic artist, Russia / 1988 Graduated The Kalinin Art Academy, Russia
Exhibitions 2014 Miss Vulnerable, Erarta Galleries, Zurich, Switzerland / 2014 'Rossiya'. The International Biennale of Vallauris ; Creation and Ceramic, France
Collections Moscow Museum of Modern Art, Russia / Musée Magnelli, Musée de la Céramique, Vallauris, France
www.abrochet.com